

제1

(1)

(1교시)

▷ 시간과 공간

* 시간과 공간의 기본적 차이점

- 시간: 불가역적(irreversible). 내면적. (→인간 삶의 절대적 조건. 시간 앞에 무력한 인간)
- 공간: 가역적(reversible). 외면적. (→비교적 다루기가 쉽고, 인간의 능력이 심분 발휘됨)

* 서구 철학의 변천사

- 근대 이전 : 공간 중심적 사유.
⇒ 그리스의 헬라스(Hellas)적 사고. ('이데아(idea)¹⁾', '에이도스(eidos)²⁾', '형상(形相)')
- 19세기 이후 : 시간 중심적 사유.
⇒ 니체의 '생성의 철학', 베르그송의 '지속의 철학', 화이트헤드³⁾의 '과정의 철학', 하이데거의 『존재와 시간』 (cf, 생물학에서는 '진화론'이, 인문사회과학에서의 '역사학'이 주류를 형성)
- 20세기 이후 : 공간에 대한 적극적 사고 부활.
⇒ 구조주의 (미셸 푸코, "근대 이후, 서구 철학이 시간을 지나치게 편애해 왔다.")

▷ 무수한 종류의 공간

- 기하학적 공간, 물리적 공간, 도시 공간, 논리 공간 등 수많은 종류의 공간이 존재.
-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흙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의 의미 : 공간의 종류가 아닌 '공간의 성격'.

▷ 『천의 고원』의 기초 개념들(→들뢰즈, 가타리의 공간론 이해를 위해)

- 영토화(territorialization)란, 기계들의 배치(→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이 접속해서 일정한 배치를 형성하는 것.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)
⇒ 세계는 기계들의 접속이며 기계들의 접속은 항상 배치를 형성, 그 배치는 가변적이다.
∴ 영토화, 탈영토화, 재영토화가 일어난다.

※ 들뢰즈, 가타리가 말하는 '기계(machine)' : 스토아학파의 'soma(→corpus)'에서 유래. 모든 것을 기계와 사건으로 대비시킨다. 사람의 마음에 대한 철학이 결여됨.

1) 플라톤 철학의 기본개념으로 동사 '이데인'(idein:보다,알다,)의 파생어.

2) 그리스 철학에서 '형상'의 뜻.

3) Whitehead, Alfred North (1861-1947). 본래 영국의 수학자이자 이론 물리학자로서 케임브리지 대학 강사(1885-1911)를 거쳐 런던대학의 응용수학 및 이론물리학을 강의했다. 이후 1924년 하버드 대학의 초빙을 받아 정식 철학 교수가 된 그는 체계적인 형이상학을 구축한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다.

(2-3교시)

- 기계적 배치와 연표적 배치가 있다.
- : 연표적 배치는 사건들과 맞물려 있다.
- : 감옥은 기계적 배치이지만, 법학은 연표적 배치이다.
- : 연표적 배치와 기계적 배치의 열개가 현실을 형성한다.

▷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

- 흠 패인 공간이란 일정하게 길이 나 있는 공간을 말한다. 도시의 길이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. 흠 패임이란 영토화가 강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. **모든 흠 패임은 넓게 보자면 국가 장치와 더불어 존재한다.**

사진1 르코르뷔지에 '와이젠 호프'

- 인간은 본래 유목적 삶을 살았으나 정주적 삶을 살면서 공간이 흠 패이게 된다. 특히 도시의 건설은 흠 패인 공간을 가져왔다. **르 코르뷔지에**⁴⁾ 같은 사람은 흠 패인 공간의 전형을 사유했다. 직선을 선호했으며 곡선을 폄하했다. 도시의 기능에 비추어 직선을 선호했고, 굽은 길은 '당나귀의 길'이라 불렀다.

- 매끄러운 공간은 흠이 패어 있지 않아 미끄러운 공간이다. 그러나 아무 규정성도 없는 공간은 아니다. 바다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, 물의 냄새, 물결의 모양 등의 요소들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. 유목적 공간은 **촉각적 공간**, 또는 (촉각에 한정시키지 않으려면) **촉지적 공간**이다.

⇒ **연속적 변이(continuous variation)** : 매끄러운 공간은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끝없이 변이하는 것이다.

- 매끄러운 공간은 탈영토화 운동을 근간으로 한다. **초원, 사막, 바다, 하늘** 등은 매끄러운 공간을 성립시키는 대표적인 지리적 조건들이다. 그러나 이런 공간조차도 이미 흠 패인 공간이 되었다. (전지구의 영토화, 사적 소유화)

- 그러나 매끄러운 공간을 반드시 즉물적인(지리적인) 것으로 한정해 이해할 필요는 없다. 모든 형태의 창조는 매끄러운 공간을 전제한다.

- : 모택동의 게릴라전(땅 대신 인민의 마음을 얻음)
- : 현대 회화(다양한 재료의 사용. 탈영토화(재료상), 탈코드화(내용상))
- : 득도(得道)
- : 사유) 연속적 변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.

4) “모든 도시의 길은 직선을 지향해야 한다.”→모더니티 문화의 전형적 생각.